

인디아, TiO₂ 생산능력 6만톤 증설

인디아 KMM(Kerala Minerals & Metals)가 TiO₂ 생산능력을 증설한다.

KMM은 Chavara 소재 TiO₂(Titanium Dioxide) 4만톤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006년 중반까지 6만톤으로 증설한 후 2007년 말까지 1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.

투자액은 76억루피(1억6900만달러)로 인디아 Mecon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12/22>